

아동의 안전에 관한 인식과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이한용* · 우종웅** · 김일영***

*남서울대학교 · **명지대학교 · ***한국아동안전교육관리협회

〈목 차〉

I. 서론	V. 고찰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고찰	Abstract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고도로 발달된 의학과 과학문명의 발달로 각종 질병에 의한 사망이나 장애의 발생은 과거에 비해 감소되었고 우리들의 생활에 편리와 안락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갖가지 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의 손실과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가져왔다. 더불어 이러한 사고에 의한 여러 가지 손실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시설의 미비와 안전교육의 부족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여 사고에 대한 위험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사고가 우리사회 전체를 심각할 정도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산하에 「안전문화추진 중앙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산업안전

공단에 「안전문화추진본부」를 두어 범정부적 차원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최영일, 1998).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행정이나 환경이 성인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행정과 환경은 너무나 부족하다.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안전 시설이나 그들에 대한 인식, 교육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그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사고율 역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다.

특히 유니세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91년~95년 상해로 인한 1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조사해 발표한 '선진국의 어린이 상해 사망'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화재나 교통사고 등 상해로 사망하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다(유니세프 보고서, 2001).

인간의 불안정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85%는 안전교육, 안전관리 및 봉사에 의해 방지할 수 있으며, 15%에 해당되는 불안정한 환경에 의한 사고 역시 안전교육, 과학, 기술 및 안전재해법 집행에 의해서 통제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권봉안, 1987).

이런 결과로 볼 때 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그에 따른 지식이나 가치관,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교육이 교육현장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실태를 실시한 결과, 안전교육의 실시 정도가 충분했다는 응답이 34.2% 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54.3%, 불충분했다는 응답이 11.5%로 밝혀졌으며, 안전교육이 불충분했던 이유로는 71.3%의 교사가 체계적인 지도내용의 준비 부족이라고 답하였고, 교육보조자료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15.6%로 나타났다(최영일, 1998). 이러한 사실은 아동안전교육의 현장에서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이 되어 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안전 교육에 대한 교육 자료준비와 시설 및 제도적인 미비로 인하여 안전교육의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전교육현장의 교사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이 인식되어, 이제까지 많은 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나, 위험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동안전교육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위험 현장에서 지휘 감독하고 이끌어 주는 교사나 지도자의 안전에 대한 대비의 잘못과 여러 가지 안전시설의 미흡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면에서 위험 상황에 대하여 1차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사람은 다른 아동 자신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위험한 환경의 현실세계에 내 던져지는 아동들이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이 교육을 받고 얻은 지식이 행동으로 올바르게 옮겨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과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전교육의 현장과 실제생활에 맞추어 아동의 입장에서 안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시각, 아동 자신이 피교육자로서 안전에 대한 교육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성취되었으며, 어떠한 위험상황에 대처했을 때 적당한 대응을 했는가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아동의 안전 교육현장에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표 1〉 조사대상자의 분포

학교	학 년						전체
	1	2	3	4	5	6	
A(서울:강남)	217	240	389	257	278	146	1,527
B(경기)	61	68	192	133	179	130	763
C(서울:강북)	74	163	153	118	137	118	763
전체	352	471	734	508	594	394	3,053

인식과 위험환경에 대처능력을 조사·분석하고자 서울과 경기지역 초등학교 3개교를 무선 선정하여 각 학교의 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설문지 조사의 대상은 3,200명이었으나, 3,053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이 95.8%이었다.

SPSS-1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안전교육과 관련된 각 항목에 대하여 각 집단(학교별, 학년별)별 빈도 분포율(백분율)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각 집단간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교차분석(X^2)을 실시하였다.

2. 설문지구성

이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학교안전, 교통안전, 놀이안전, 생활안전, 화재안전, 그리고 안전의식 등에 관한 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지의 신뢰도는 $\alpha = .7869$ 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한글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 나라 아동들의 현실로 볼 때 학교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 내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학교의 외적인 등하교 길에서의 안전을 학교안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표 2〉 학교별 등하교 길의 안전에 대한 인식

(명 : %)

	A학교	B학교	C학교	전체
안전하다	656(43.0)	214(28.1)	292(38.3)	1,162(38.1)
보통이다	639(41.8)	375(49.1)	338(44.3)	1,352(44.3)
불안하다	232(15.2)	174(22.8)	133(17.4)	539(17.7)
전체	1,527	763	763	3,053

$X^2 = 49.152$ ($p = .000$)

1) 등하교 길에서의 안전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본인이 느끼고 있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학교별, 학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학년별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539명(17.7%)의 학생이 불안하다고 답하였으며, 안전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162명으로 전체의 38.1%의 학생이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방 학교의 학생들보다 지방의 학생들이, 강북의 학생들이 강남의 학생들보다 등하교시 안전의 위협에 대하여 다소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 집단 간의 등하교 길 안전인식의 평균치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 49.152$, $p = .000$).

학년별 등하교시의 안전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저학년일수록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아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년일수록 등하교시 다소 불안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각 학년별 집단 간의 등하교 길 안전인식의 평균치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25.363$, $p=.000$).

따라서 등하교시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

하여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62.0%에 달하는 학생이 '보통이다'와 '불안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본인들이 느끼는 등하교시 안전에 대하여 다소 불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경찰청이 발표(1995)한 어린이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모두31,698건으로 788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의 7.6%에 달한다는 하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에 대하여 다소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안전사고 보고자료(한국소비자보호원, 1998)에 의하면 학교 앞 도로와 학교 주변 이면도로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위험하고 학교주변임을 운전자에게 알려 서행토록 하기 위한 학교주변 알람 표지판이 학교의 정문 앞이나 담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자에게 제대로 의미전달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등하교 길의 안전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의 폭력에 대한 안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표 3> 학년별 등하교 길의 안전에 대한 인식

(명 : %)

	1	2	3	4	5	6	전체
안전하다	205(58.2)	190(40.3)	251(34.2)	184(36.2)	212(35.7)	120(30.5)	1,162
보통이다	77(21.9)	201(42.7)	381(51.9)	251(49.4)	248(41.8)	194(49.2)	1,352
불안하다	70(19.9)	80(17.0)	102(13.9)	73(14.4)	134(22.5)	80(20.3)	539
전체	352	471	734	508	594	394	3,053

$X^2 = 125.363$ ($p = .000$)

2) 아동생활안전의 위협 요인

아동생활 중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안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생활안전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전체 3,009명중에서 1270명의 아동이 교통안전, 789명이 시설물안전, 688명이 화재안전을 지목하였다. 그리고 놀이터 안전, 폭력안전이 각각 171명, 9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초등학교 아동들 역시 교통안전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물 안전을 지목하였다.

이들 각 집단 간의 아동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의 평균치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58.657, p=.000$).

이는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연구(최영일, 1998)에서, 교내에서는 놀이와 운동 중 안전이 29.1%, 교내 휴식시간 중의 안전이 28.1%, 체육학습에서의 안전이 25.2%, 실험실습에서의 안전이 14.0% 등이었으며, 학교 외에서는 교통안전이 92.1%, 현장학습과 고적답사에서의 안전이 3.3%, 가정생활에서의 안전이 1.4%, 수상안전이 1.1% 등으로 조사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아동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역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그 다음이 시설물, 화재, 놀이터, 폭력 안전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또한 저학년일수록 교통안전을, 고학년일수록 시설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표 4> 학교별 아동생활안전에 대한 인식

(명 : %)

	A학교	B학교	C학교	전체
시설물안전	380(25.3)	172(23.0)	237(31.2)	789(26.2)
놀이터안전	83(5.5)	45(6.0)	43(5.7)	171(5.7)
교통안전	679(42.5)	294(39.3)	297(39.1)	1,270(42.2)
화재안전	319(21.3)	199(26.6)	170(22.4)	688(22.9)
폭력안전	40(2.7)	39(5.2)	12(1.5)	91(3.0)
전체	1,501	749	759	3,009

$X^2=58.657(p=.000)$

<표 5> 학년별 아동생활안전에 대한 인식

(명 : %)

	1	2	3	4	5	6	전체
시설물안전	51(14.8)	89(19.1)	160(22.2)	143(28.5)	211(35.9)	135(34.8)	789(26.2)
놀이터안전	27(7.8)	28(6.0)	46(6.4)	24(4.8)	28(4.8)	18(4.6)	171(5.7)
교통안전	198(57.4)	248(53.3)	330(45.7)	185(36.9)	181(30.8)	128(33.0)	1,270(42.2)
화재안전	59(17.1)	94(20.2)	165(22.9)	123(24.6)	151(25.7)	96(24.7)	688(22.9)
폭력안전	10(2.9)	6(1.3)	21(2.9)	26(5.2)	17(2.9)	11(2.8)	91(3.0)
전체	345	465	722	501	588	388	3,009

$X^2=155.151(p=.000)$

나타났다. 이들 각 학년별 집단 간의 아동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의 평균치 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151.151, p=.000$).

3) 아동안전교육실시 여부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표 7>에 나타나 있다.

학교별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각 학교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학교별로는 지방학교와 강북의 학교보다는 강남의 학교에서 다소 아동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각 학교별 아동안전교육의 실시 여부의 평균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47.123, p=.000$).

또한 각 학년별 아동안전교육의 실시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대체로 저학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학년이 될수록 그렇다는 완전히 긍정적인 답변이 4학년에서는 49.5%, 5학년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38.3%, 6학년에서는 더 감소된 20.4%로 점차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각 학년별 아동안전교육의 실시 여부의 평균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471.637, p=.000$).

이는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접하면서 겪게되는 여러 가지 사회와 학교 환경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안내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고학년이 될수록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게되는 교과과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6> 학교별 아동안전교육 실시여부에 대한 조사

(명 : %)

	A학교	B학교	C학교	전체
그렇다	846(55.7)	317(41.9)	380(50.1)	1,543(50.9)
보통이다	582(38.3)	350(46.3)	306(40.3)	1,238(40.8)
아니다	91(6.0)	89(11.8)	73(9.6)	253(8.3)
전체	1,519	756	759	3,034

$X^2=47.123(p=.000)$

<표 7> 학년별 아동안전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

(명 : %)

	1	2	3	4	5	6	전체
그렇다	304(87.1)	291(62.3)	392(53.7)	250(49.5)	226(38.3)	80(20.4)	1,543
보통이다	36(10.3)	153(32.8)	301(41.2)	226(44.8)	303(51.4)	219(55.7)	1,238
아니다	9(2.6)	23(4.9)	37(5.1)	29(5.7)	61(10.3)	94(23.9)	253
전체	349	467	730	505	590	393	3,034

$X^2=471.637(p=.000)$

2.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학교별 결과, <표 8>과 학년별 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3045중에서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1,002명,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이 1,761명, 아니라고 답한 학생이 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교통법규를 보통으로 지키는 아동과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아동을 합하면 전체 아동의 67.1%로 나타났다($X^2=47.693, p = .000$).

이는 유니세프 보고서(2001)의 결과를 부연 설명하는 결과인 것이다. 교통법규는 무조건 철저히 지켜야만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이라고 응답을 한 아동의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응답을 대신하여 주는

에이다.

유니세프 보고서(2001)에 의하면 OECD 26 개 회원국 중 인구밀도가 많은 나라 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상해 사망율이 91년에서 95년 사이에 일본은 10만명 당 2.9명이 사망하였고, 미국은 5.8명, 캐나다는 4.3명, 우리나라는 12.6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아동들은 교통사고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이며, 보호해야할 어른들의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교통법규라는 것은 적당하게 지켜서는 안전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사망원인이 늘어 날 수도 있으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당하는 아동들의 잘못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결과인 것이다.

<표 8> 학교별 교통법규 준수 여부

(명 : %)

	A학교	B학교	C학교	전체
그렇다	554(36.4)	185(24.3)	263(34.6)	1,002(32.9)
보통이다	838(55.0)	478(62.8)	445(58.5)	1,761(57.8)
아니다	131(8.6)	98(12.9)	53(7.0)	282(9.3)
전체	1,523	761	761	3,045

$X^2=47.693(p=.000)$

<표 9> 학년별 교통법규 준수 여부

(명 : %)

	1	2	3	4	5	6	전체
그렇다	239(68.5)	203(43.2)	231(31.6)	151(29.8)	112(18.9)	66(16.8)	1,002
보통이다	88(25.2)	233(49.6)	451(61.6)	318(62.8)	415(69.9)	256(65.0)	1,761
아니다	22(6.3)	34(7.2)	50(6.8)	37(7.3)	67(11.3)	72(18.3)	282
전체	349	470	732	506	594	394	3,045

$X^2=361.112(p=.000)$

학년별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표 9>를 살펴보면, 저학년일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으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다 또는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많이 나타났다($X^2=361.112, p=.000$). 이것은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는 고학년이 되면서 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 어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교통법규는 준법정신을 위하여 지켜야 하겠지만 교통법규는 아동교통안전상의 이유로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지 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들은 인체 발육·발달학상 주위가 산만하고, 사고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위 환경에 대하여 방어능력이 부족으로 손만 들고 횡단보도를 무작정 건너간다거나 차도에 뛰어드는 등의 돌발행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교통안전을 지키

기 위해서는 어른에 대한 교육 또한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통에 대한 안전은 교통사고의 주체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주의를 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안전운전교육 또한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운전자의 경우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운전자 역시 준수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횡단보도 앞 서행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보행신호조차도 무시하는 운전자도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도 횡단보도 앞에서의 안전을 항상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3. 놀이안전에 대한 인식

최근 아동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단연 킥보드일 것이다.

롤러 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탈 때 안전보호

<표 10> 학교별 놀이 안전보호 장비 착용 여부

(명 : %)

	A학교	B학교	C학교	전체
그렇다	422(28.2)	156(21.5)	229(31.1)	807(27.1)
보통이다	329(21.9)	178(24.5)	157(21.3)	664(22.4)
아니다	748(49.9)	393(54.1)	350(47.6)	1,491(50.3)
전체	1,499	727	736	2,962

$X^2=11.670(p=.020)$

<표 11> 학년별 놀이 안전보호 장비 착용여부

(명 : %)

	1	2	3	4	5	6	전체
그렇다	207(59.7)	180(39.1)	206(29.8)	110(22.0)	71(12.2)	33(8.6)	807
보통이다	50(14.4)	123(26.7)	160(23.2)	119(23.8)	126(21.7)	86(22.5)	664
아니다	90(25.9)	157(34.1)	325(47.0)	272(54.3)	384(66.1)	263(68.8)	1,491
전체	347	460	691	501	581	382	2,962

$X^2=398.550(p=.000)$

장비를 착용하는가에 대하여 학교별과 학년별로 조사된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등을 탈때에 보호장구(헬멧,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장갑 등)를 착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각 학교별로 살펴본 결과, 질문에 대하여 전체 대상자 2,962명 중에서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491명으로 50.3%를 차지하고 있다 ($X^2 = 11.670$, $p = .020$).

또한 저학년의 경우보다는 고학년에서 불편함과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X^2=398.550$, $p=.000$).

저학년일 때는 가정에서의 관심으로 안전보호 장비의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신의 실력을 믿고 이러한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1995년도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롤러 스케이트나 킥보드, 자전거 등에 의하여 15세 이하 아동의 약 6만 5천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중 2만 9천명의 아동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한다. 1992년 이후 약 25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였고, 이중에 15명이 1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이들중 부상자의 3분의 2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6년 조사(CPSC) 결과, 매년 병원에 40만명의 아동이 롤러 스케이트나 킥보드, 자전거 등을 타다가 부상을 당하는데, 헬멧의 착용으로 인하여 머리 부상이 85% 가까이 줄고 있으나 아직도 평균 300명 가까이 머

리 부상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2000)에서는 킥보드와 관련한 사망사고 보도와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다수 접수되어 2000년 10월부터 11월까지 25건의 사고사례 분석 및 구조적 차이가 있는 킥보드의 구조와 제동성능 등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제동거리가 8m 이상이나 되었으며 킥보드를 이용하는 아동의 대부분이 헬멧이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 장비를 미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자의 연령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나타나는데, 발생도로는 골목길을 포함한 도로가 18건(72.0%)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자 모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내리막 길에서 사고난 아동이 34.8%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들이 이러한 놀이기구를 이용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는 롤러스케이트,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하다가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안전보호 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율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아동들이 킥보드나 자전거 또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며, 그러한 안전보호 장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가정에서조차도 무관심한 실정이다.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할 경우, 부상의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 장비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이나 교육 등이 필요하고 이러한 놀이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4.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 안전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중에 부모님들이 아동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한 결과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3009명중에서 교통안전이 1431명으로 47.5%, 가스안전이 990명으로 32.9%, 화재안전이 425명으로 14.1%의 순으로 부모님들이 아동들에게 중요하게 교육시키는 영역으로 조사되었다($X^2 = 79.776, p = .000$).

이 결과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으로서 아동 자신이 느끼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으며, 가정에서 아동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에 맞게 가스 안전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가스 안전은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가스안전과 화재안전을 같이 생각하면 전체의 95%가 교통안전과 화재(가스)안전으로 이 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은 아동들이 좋고 싫음, 자신들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나 감정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 특히 요즘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문제나 학교 폭력 등에서 우리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의 이런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요즘은 가정에서 혼자 남아있는 아동들이 많고 이러한 아동들에게 가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등하교 길의 교통안전 교육, 놀이시의 안전교육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

우리는 얼마 전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어린 생명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화재안전교육은 대부분 소방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재에 의한 사고로 많은 어린 생명들을 잃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불에 대한 중요함과 경각심을 일깨

<표 12> 학교별 가정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명 : %)

	A학교	B학교	C학교	전체
가스안전	567(37.6)	217(29.0)	206(27.2)	990(32.9)
놀이터안전	41(2.7)	13(1.7)	13(1.7)	67(2.2)
교통안전	634(42.1)	392(52.4)	405(53.6)	1,431(47.5)
화재안전	219(14.5)	87(11.6)	119(15.7)	425(14.1)
기타	44(2.9)	39(5.2)	13(1.7)	96(3.2)
전 체	1,505	748	756	3,009

$X^2=79.776(p=.000)$

위 주어야 하며 이러한 화재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과 국가의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1) 화재에 대한 경각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불장난의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의 결과 <표 13>과 같이 조사되었다.

불장난을 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전체 아동 중에 31.3%를 차지하였으며, 불장난을 한 경험이 없는 아동이 58.0%로 조사되었다($X^2=32.785, p=.000$).

이 결과는 매우 위험한 수치이며 호기심이 많은 아동들에게는 불장난은 아동의 기준으로 볼 때 놀이의 일종으로 여겨 질 수도 있으므로 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간의 불장난의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저학년에 비해서 고학년이 불장난을 많이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X^2 = 503.816, p = .000$). 저학년은 부모의 관심과 어린 마음에 불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서 고학년에 비해서는 수치가 적게 나왔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부모의 관심에서 조금 떨어진 영향과 불에 대한 호기심도 있지만 불에 대한 경각심을 여전히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화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지 못한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화재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받은 기억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3> 학교별 화재의 위험도 판단에 대한 인식

(명 : %)

	A학교	B학교	C학교	전체
그렇다	440(28.9)	284(37.4)	231(30.3)	955(31.3)
보통이다	163(10.7)	98(12.9)	64(8.4)	325(10.7)
아니다	922(60.5)	378(49.7)	468(61.3)	1,768(58.0)
전체	1,525	760	763	3,048

$X^2=32.785(p=.000)$

<표 14> 학년별 화재의 위험도 판단에 대한 인식

(명 : %)

	1	2	3	4	5	6	전체
그렇다	42(11.9)	67(14.2)	151(20.6)	165(32.5)	297(50.3)	233(59.1)	955
보통이다	10(2.8)	35(7.4)	93(12.7)	63(12.4)	75(12.7)	49(12.4)	325
아니다	300(85.2)	369(78.3)	489(66.7)	279(55.0)	219(37.1)	112(28.4)	1,768
전체	352	471	733	507	591	394	3,048

$X^2=503.816(p=.000)$

〈표 15〉 화재 안전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

(명 : %)

	A 학교	B 학교	C 학교	전체
그렇다	422(27.9)	231(30.6)	167(22.2)	820(27.2)
보통이다	152(10.0)	81(10.7)	83(11.0)	316(10.5)
아니다	939(62.1)	442(58.6)	502(66.8)	1,883(62.4)
전체	1,513	754	752	3,019

$$X^2=25.827(p=.000)$$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에 대하여 전체 3,019명중에서 62.4%인 1,883명의 아동이 소방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이다($X^2=25.827$, $p=.000$). 씨랜드 화재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막상 불이 나면 당황하고 겁이 나서 훈련 상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화재에 대한 안전교육, 즉 소방훈련의 필요성의 여부에 대한 조사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아동들 가운데 소방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331명으로 77.1%에 달하였다($X^2 = 10.723$, $p = .030$). 아동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위협을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하여 간접경험을 한 결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으나, 아동 스스로가 화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고 있다는 데에 다소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화재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아동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한 결과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취해야 하는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야 하고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화재안전 교과목 선정, 화재안전의 교재 및 지도서, 전문교사의 양성 또는 화재안전 담당교사의 재교육, 화재안전 관련 교구 마련, 공공기관(소방소)과의 협조와 지원 등이 시급하며, 위급 발생시 교사들이 취해야

〈표 16〉 화재 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명 : %)

	A 학교	B 학교	C 학교	전체
그렇다	1,178(78.1)	591(78.1)	562(74.1)	2,331(77.1)
보통이다	221(14.6)	113(14.9)	132(17.4)	466(15.4)
아니다	110(7.3)	53(7.0)	64(8.4)	227(7.5)
전체	1,509	757	758	3,024

$$X^2=10.723(p=.030)$$

하는 응급요령(행동요령)과 구급처치요령 등의 전문지식 또한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이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안전 교육의 실태를 아동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의 안전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시각, 아동 자신이 피교육자로서 안전에 대한 교육의 효과 성취도,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등하교시 안전에 대하여 저학년일수록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고학년일수록 불안하다고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다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생활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교통안전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시설물안전, 화재안전, 놀이터 안전, 폭력안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전교육의 실시여부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고학년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통법규 준수에 있어서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으나, 고학

년일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안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발육발달상 단순한 돌발행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교육이 절실하다.

넷째, 놀이안전에 있어서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관심으로 인하여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학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보여주기 위한 자신감에 넘쳐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보호장구의 착용과 철저한 안전관리의 실천을 생활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생활안전에 대하여는 부모들의 시각에서 우선적으로 아동안전교육을 시키는 영역으로 교통안전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가스안전과 화재안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학부모 모두 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화재안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불장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학년에 비하여 고학년일수록 호기심과 놀이의 수단으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성장할수록 부모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호기심에 의한 불조심의 경각심이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에 대비한 소방훈련 또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스스로 화재 안전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어른들의 시각에서 실시되었던 아동

안전교육은 아동의 입장에서 교과과정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안전교육의 평가가 아동안전에 대한 교육의 실시 여부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동들이 지식의 전달에 의하여 안전의 생활화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안전교육의 방법 또한 교육의 전형적 방법인 주입식과 암기식에서 탈피하여,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으로써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 산업안전과는 별도로 아동안전교육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지도 교사나 아동들이 안전교육의 체험을 통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아동안전관리교육의 대상은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아동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되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으나, 아동의 안전을 아동에게만 교육시켜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맡길 것이 아니라 아동안전과 관련된 모든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시킴으로서 아동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교육부, 제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강조할 중점 교육분야, 1992

권봉안, 강정호, 김광성, 안전교육, 서울 : 도서출판 금광, 1987

권상도,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김원용, 체육시간 안전사고와 성취동기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용수, 한준섭, 안전교육론, 서울 : 경기공업전문대학교, 1986

박경숙, 왕따 및 학교폭력 피해실태, 한국교육개발원, 2001

서래환, 안전교육의 실태분석과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서울시교육연구원, 학생사안의 예방과 지도, 서울 : 서울시 교육연구원, 1982

윤재길, 초등학교 학교안전사고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상간, 이준희, 정광복, 신안전교육, 서울 : 세종출판사, 1994

이준희, 학교보건교육론, 서울 : 교육출판사, 1994

이화여자대학교 인간발달연구소, 안전교육 지침, 서울 : 교육출판사, 1976

정일용,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주낙서, 인체안전교육론, 서울 : 명지출판사,

1987

최영일, 초등학교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인범, 안전교육, 서울 : 정민사, 1982

한국산업안전공단, 초등학교 교사용 어린이 안전교육 지침서, 한국산업안전공단, 1996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민학교 교사용 안전보건교육 지도안, 한국산업안전공단, 1995

한국소비자보호원, 초등학교 시설물 및 학교주변 안전실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8

한국소비자보호원, 키보드 안전실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unicef. A League table of Child Deaths by Injury in Rich Nations. Innocenti report card . 2001, 2.

〈ABSTRACT〉

Research on the Cognition and Education of Safety for Children

Lee Han-yong* · Woo Jong-woong** · Kim Il-young***

** Namseoul University · ** Myongji university · *** Korean infant safety education lead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from primary school children's viewpoint to perception of safety as to how they cope with a condition threatening safety at the realistic world with risky environment and whether knowledge obtained through education is transmitted to action in a correct way.

For this, this study explored and analyzed children's perspective to safety felt in life, their achievement of education to safety as trainees, and their perception extent to safety.

As a result of it, following conclusion could be obtained.

First, as for safety on their way to school and home, the lower grade they were, the more they felt safe, but the higher they were, the more they felt uneasy, which was examined that they generally had uncomfortable mind.

Second, as for whether safety education was performed or not, it was indicated that safety education was generally executed, but lower graders responded that safety education was executed, but high graders responded that it was not executed.

Third, as for observance of traffic rules, it was examined lower graders kept them well, but higher graders did not do so.

Fourth, as for safety of play, it was indicated lower graders wore protective equipment by parents' concern, but higher graders did not wear them since they were full of confidence counting on their capability.

Fifth, as for life safety, it was indicated the area most preferentially educated from parents' viewpoint was traffic safety, and the next ones were gas and fire safety.

Sixth, as for fire safety, it was indicated they did not play with fire, but higher graders compared to lower ones, played with fire as the means of curiosity and play.

Thus, curricula for children's safety education executed from adults' viewpoint should be established, and assessment of children's safety education should get out of the limitation of execution of safety education to habituated action by the transmission of children's knowledge.

Also it is urgent to develop programs with which to perform children's education at the level of children, establish and operate safety education facilities for practice education that teachers and children can receive safety education through experience by building up children's safety education related entities.

And it is thought that safety should not left to only children, but their safety would be kept by developing and training safety education programs to al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lated to safety.